

장성, 공공실버주택으로 노인복지 '새 지평' 열었다

장성 '누리타운' 준공 100일

원스탑 시스템으로 독보적 장점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

장성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준공 100일을 맞았다.

올해 3월 광주·전남권 최초로 장성군에 준공된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이다. 임대료는 월 3~5만 원, 5~7만 원 선으로 법정최저 수준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장성군은 누리타운 내에 사회복지관을 개관해 세대별 심층상담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취미·여가교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경로식당(평일 중식) 등을 타운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바로 '열 건물'인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 체크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타운에서 배식봉사 중인 유두석 군수(오른쪽).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원 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춘 것은 누리타운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다.

◆어르신들 만족도 높아

누리타운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건강함을 더했다. 또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는 수압식 세면대 높이 조절장

치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그래서일까 누리타운에 입주한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누리타운 입주민 김갑용(88)씨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복도마다 설치

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내 주거환경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단위 최초, '150세대 확보' 결실

애초에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중앙부처에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신청자격을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어르신들의 주거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로까지 사업신청자격을 확대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줄기차게 건의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군 단위 최초로 공공실버주택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유 군수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초 공모 당시 80세대였던 사업량을 약 1.5배 가까이 늘려 150세대를 확보했던 것. 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타 지역 사업에서 남은 '자투리 세대' 들을 발 빠르게 끌어 모은 결과다.

◆조용하지만 큰 변화

지난 1일,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유군수가 향한 곳은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1층 '경로식당'이었다. 유 군수는 이날 점심, 지역 어르신들의 식판에 손수 국과 밥을 담았다.

그는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군민의 행복이며, 장성군민의 행복은 지역 어르신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냉난방조차 여의치 않은 낡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최신 시설을 갖춘 읍내 복지주택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 누리타운이 풀고 온 '조용하지만 큰 변화'다.

유 군수는 "장성을 처음 찾으신 분들이 읍 시가지 한복판에 서있는 누리타운의 야경을 보고 '저기 탁 트인 도로 앞 고급 아파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집안의 어르신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장성군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무안국제공항.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휴가철 맞아 활기 띈다

신규노선 이용·다각적 홍보 대책 마련

무안국제공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을 제2의 모항으로 삼은 지 1년 만에 후쿠오카 노선을 신규 취항하여 총 10개 노선을 운항하게 되었다.

이번 후쿠오카 취항으로 여름휴가철 관광객을 비롯해 호남과 충청지역 주민들의 여행 편의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신규노선 이용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광주버스터미널 24시간 전광판 홍보

에 이어 광주 고속버사와 전북지역 시내버스 차량광고, 내나라여행박람회, 갯벌축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로 이용객 증가에 힘쓰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도 관내 이장협의회,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개항 11년만에 연간 이용객 56만명을 달성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 이용객이 47만 2500명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하였다.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202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연간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써 자리를 굳힐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양수영 기자

전남도, 행안부 선정 마을기업 13곳 선정

신규 7곳과 2·3차 선정 6곳 지정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도내 13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목포(목포포 마중물마을기업, 순천 청수골로오란다, 나주(주)토종스토리, 나주 한마음 돌봄사회서비스협동조합, 광양매화골 농원 영농조합법인, 곡성 수정마을, 영암 다한날애, 7곳이다. 또 전년도 지정 후 2차로 선정된 기업이 4곳, 3차 선정된 기업이 2곳이다.

신규 지정 기업 가운데 청수골로오란다는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 유일의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이다. 공·폐가 밀집 지역에서 '엄니밥상' 마을식당 운영, 직접 개발한 강정 과자의 제조판매로 수익구조를 실현하는 대표적 성공사례를



전남도청 전경.

만들었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홍보 등 판로 지원 사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자립화를 도와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신규 마을기업 가운데 5개 기업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기업이다. 2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업화 구조를 탄탄하게 다져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지정됐다.

현재 전남지역 마을기업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81개, 행안부형 마을기업 161개로 총 242개다. 2017년 말(204개)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김희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55

7월 11일 (목)
음력 : 6월 9일

수도권 날씨
26~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남원시, 광한루 600년 기념 타임캡슐 이벤트

'사랑의 편지' 모아 10년 뒤 꺼내

내가 쓴 '사랑의 편지'는 10년 뒤 어떤 감동과 느낌으로 다가올까.

남원시가 광한루 건립 600년을 기념해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임캡슐 '사랑의 편지'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이 보내준 편지 600통을 모아 10년 뒤 다시 보내는 행사로 7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타임캡슐은 8월3일 광한루원내 춘향관에 봉인한다.

사랑의 편지는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남원을 찾는 관광객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내용과 대상도 자신이나 가족, 연인 등 자유이다 단, 지정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 봉투는 남원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각 관광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를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한여름 밤의 막걸리 축제 ▲광한루 600년 기념식과 축하공연 ▲10년 후 개봉할 600통의 편지를 봉인하는 타임캡슐 이벤트 ▲600년의 타복과 함께하는 소원 이벤트 600타복행사 등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함께 광한루의 6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원=봉채영 기자

인천 부평구립도서관 '푸른 사자 와니니' 북콘서트

부평구립도서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2019년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도서 독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부평구 아파트에 '책 읽는 아파트' 현판 전달식이 진행된다.

또, 시집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로 많은 사랑을 받은 오은 시인의 진행으로 이현 작가('푸른 사자 와니니'의 저자), 김지은 아동문화평론가와 함께 '푸른 사자 와니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인천=박종국 기자 jkpark@